

상류사회 풍자극 'SKY 캐슬', 입시공화국의 허를 찌른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바로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들겠다고"

상위 0.1% 부모들 입시에 매달리는 모습 그려

아빠가 못할 것 같아? 이미 아빠가 기반을 다 닦아놨잖아. 내가 조금만 조금만 힘을 내면 꼭대기까지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어. 우리 아들, 할 수 있지?' 아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피라미드 모형 앞에 무릎 꿇린 뒤 이렇게 속삭인다. 그의 손끝은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가리키고 있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이 광경은 대항히 실재가 아니라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의 한 장면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모두는 안다. 현실은 이보다 더하다는 것을.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한창 화제가 됐다가 지난달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에는 '수능 만점자들의 사연이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린다. 아들·딸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리기 위해 상위 0.1% 명문가 부모들이 대학 입시에 매달리는 모습을 그려낸 'SKY 캐슬'은, '상위 0.1%', '대학 입시' 등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한 데 아우르며 무척 인기몰이를 타고 있다. 드라마 시청률은 첫 회 1.7%(닐슨코리아)에서 6회 8.9%로 5배 이상 뛰

었고, 방영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일컫는 '스카이 캐슬러'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SKY 캐슬'은 명문 사립대 교수 가족이 모여서는 석조주택 단지 '스카이 캐슬'을 배경으로 한다. 도시 피라미드처럼 떠돌던 상류층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시청자를 끌어당겼다.

드라마에서 은행은 VIP 고객들에게 입시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비밀리에 제공하고, 수험생 부모는 입학사정관 출신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금괴를 갖다 바치거나 무릎을 꿇기도 한다. 고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키우는 김모씨(46)는 "엄마들끼리 모이면 'SKY 캐슬' 얘기로 정신이 없다. 드라마에 나온 내용을 두고 '맞다', '아니다'로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육컨설팅에 대한 문의전화 하루에 2~3건씩 걸려온다"며 "우수고객이라고 해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드라마는 입시 경쟁에 매몰된 부모의 모습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모습도 적나라

하게 그린다. 기령 박영재(송건희)는 모두가 선망하는 '서울의대'에 합격했지만, 성적에 집착하는 부모에게서 받은 고통과 분노를 일기장에 남긴 채 떠나버린다. 또 한서진(염정아)의 둘째 딸 강예빈(이지원)은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고, 그렇게 훔친 과자봉지를 밟아서 터트리며 논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한국은 사실상 입시공화국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며 "입시는 상류층이든 아니든 모두가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다. 누구나 공감하기에 흥분하다"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교육이란 관점에서 강남권 부유층을 들여다봤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상반된 감정을 자극한다"며 "하나는 저들은 사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하는 호기심이고, 두 번째는 불편함이다. 한 이 두 가지 감정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화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들의 명연기도 시청률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SKY 캐슬'은 40대 여배우들을 전면에 내세워 화제가 됐다. 주인공을 맡은 열정아(46)와 이태란(43) 뿐만 아니라

김서형(45), 윤세아(40), 오나라(41), 1·2회에 등장한 김정난(47)까지 40대다. 정덕현 평론가는 "연기에 빈 구멍이 없는데다 그 나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소재를 직접 연기하기 때문에 몰입감이 더 높다"고 했다. 지시 일이라면 물론 안 가리는 한서진부터 아이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이수인(이태란)까지, 다채롭고 입체적인 캐릭터에 감정이입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SKY 캐슬'이 학벌주의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한편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에게 처한 현실을 드러내며 공감을 샀다는 평도 있다. 입시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과의 면담에서 노승혜(윤세아)는 "불문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지만 첫 이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논문 준비는 접었다"고 밝히고, 한서진 역시 "결혼 전 잠깐 교사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관망"이라고 말한다.

김진영 TV평론가는 "JTBC는 앞서 선보인 '품위있는 그녀'나 '미스티'와 같은 중저급에서도 여성문제를 다룬 바 있다"며 "이 드라마는 다른 성취수단이 가로막힌 상태에서 기혼 여성들은 자식을 통한 성취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고학력·고스펙 상류층 여성들도 같은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2018 MAMA, 대세 셀럽 총출동...무대 빛넬 스타 누구?



10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8 MAMA PREMIERE in KOREA'에 대세 셀러브리티들이 총출동한다. 김소현, 지수, 이기우, 강승현, 홍중현, 정채연, 김유리, 배윤영이 국내 및 아시아 신인 아티스트들이 꾸미는 꿈의 무대 '2018 MAMA PREMIERE in KOREA'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지난해 각각 일본과 홍콩

'MAMA'에 참석했던 배우 김소현과 지수는 '2018 MAMA PREMIERE in KOREA'에 시상자로 나선다.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김소현과 지난해 다양한 드라마에서 보여준 매력적인 모습으로 '랜선 남친'이라는 애칭을 얻은 배우 지수가 이번 한국 MAMA에서 신인 아티스트들의 꿈을 응원할 예정이다.

최근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반전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이기우와 영화 '독전'으로 모델에서 신인 배우로 거듭난 강승현도 오랜만에 MAMA를 다시 찾는다. 훈훈한 외모와 기력지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또 다른 반가운 얼굴 배우 홍중현도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I.O.I로서 '2016 MAMA' 여자 신

인상을 받았던 다이아 정채연은 올해는 시상자로 등장할 예정이다. 또 우아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 실력으로 '빌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김유리와 동양적인 매력으로 외국 패션계에서도 주목받는 모델 배윤영은 MAMA에 첫 참석해 팬들에게 인사할 예정이다.

'2018 MAMA'는 10일 한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시작으로, 12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Saitama Super Arena), 14일 홍콩 AWE(AsiaWorld-ExpoArena, 아시아월드 엑스포 아레나)로 이어지며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찾아가는다.

한국에서는 국내 및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신인상이 수거되며, 일본에서는 올해 신설된 대상인 'Worldwide Icon of the Year'를 비롯한 Fans' Choice 부문이, 홍콩에서는 올해의 노래, 가수, 앨범 등 3개의 대상과 각 부문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언더나인틴' 첫 순위발표식 8명 탈락



'언더나인틴' 첫 순위발표식에서 총 8명이 탈락했다. 보컬 팀은 하위 3명, 랩 팀은 하위 5명이 탈락했다. 8일 방송된 MBC 주말 예능 '언더 나인틴'(Under Nineteen)에서는 MC 김소현이 등장해 '주제곡 대결' 순위를 발표했다.

첫 번째 미션인 '주제곡 대결'에서 퍼포먼스팀이 1위를 한 바, 퍼포먼스팀 멤버들은 전원 생존했다. 퍼포먼스 팀에서 1위는 우무티가 차지했다. 우무티는 미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2위는 김시현, 3위는 전도연이 올랐다.

2위 팀은 보컬 팀으로 1위는 정진성, 2위는 신예찬, 3위는 지진석이 거머쥐었다. 하위 3명 탈락자는 17위 김빈, 18위 제이창, 19위 윤도연으로 이들 세 사람이 최종 탈락했다.

첫 탈락자가 발생하자 보컬 팀 김병성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이에 다른 예비들 역시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보였다.

김빈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성장한 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이창은 "모두 꿈을 이루길 바란다. 파이팅, 사랑합니다"라며 친구들을 응원했다.

이어 3위를 한 랩 팀의 순위가 공개되었다. 랩 팀 1위는 최수민, 2위는 방준혁, 3위는 이에찬이 올랐다.

마지막으로 탈락자 다섯 명이 호명됐다. 15위 최홍운, 16위 이민우, 17위 이준환, 18위 장민수, 19위 김준제가 최종 탈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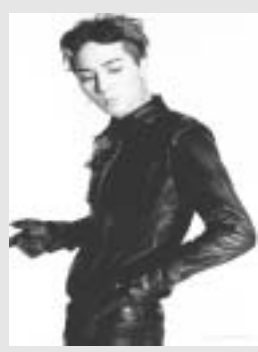
무대에 올라가지 못한 탈락자 다섯 명은 순위에서 오묘 예비들을 바라보며 "한명 한명 꼭 데뷔했으면 좋겠다"며 응원했다.

한편 두 번째 미션인 포지션 대결이 시작됐다. 첫 번째 미션에서 춤을 전혀 따라 추지 못했던 보컬 팀 지진석은 춤 실력이 확 늘었다. 솔지는 중간 점검 때 "진짜 진짜 박수 쳐줄게. 춤이 늘었다. 진짜 열심히 했구나?"라며 호평했다.

'HER'를 선곡한 랩 팀은 중간점검 때 미숙한 실력으로 디렉터의 실망을 자아냈다. 이후 이어진 점검에서는 완벽히 노래를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다이아미키 듀오는 "이제 한국 같이 보여", "라이브 보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포지션 대결에서도 탈락자가 발생하기에 '언더나인틴' 예비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송민호, '아낙네' 음원차트 1위 재탈환



음원 파워를 자랑하는 아티스트들의 신곡 러시 속 '아낙네'는 12월

9일 낮 12시 기준 멜론 실시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여기에 지나, 울레, 소리바다, 엠넷, 박스 등 사이트에서도 상위권에 안착해 눈길을 끈다.

또 지난달 28일 오후 8시 공개된 송민호의 첫 솔로 정규 앨범 'XX'의 타이틀곡 '아낙네'는 발매 당일 11월 26일부터 12월 7일 기준 멜론 일간차트에서도 굳건히 1위 지키며 12일째 차트 장기집권하고 있다.

앞서 송민호는 컴백 후 Mnet '엠카운트다운'과 MBC '쇼! 음악중심'에서 1위 트로피 2관왕을 달성, 대세 아티스트의 행보를 입증했다.

당시 송민호는 "너무 감사하다. 팬 '아낙네' 정말 감사하다. 양현석 사장님, YG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낙네'는 70년대 인기곡 '소양강 처녀'를 샘플링해 힙합과 옛 가요를 세련되게 접목한 곡으로서 친숙한 멜로디와 리듬의 변주가 신선하며,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가 귀를 사로잡는다. 그리워하

고 염원하는 대상을 '아낙네' 또는 '피랑새'에 빗대어 표현한 점이 새롭고 기발하다.

송민호의 'XX'는 17개 국가 아이튠즈 앨범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아낙네'는 9개 국가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성적을 기록했다. 음원차트 1위 행진 중인 송민호는 이번 해의 예에서도 '솔로 아티스트' 송민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국내의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는 송민호는 9일 방송되는 SBS '인기가요'에서 과거 퍼포먼스를 이어간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음력 11월 4일)



▶**성격** 목표가 있다면 결단력도 갖춰야 한다. 1, 3, 4, 5월생은 감정만 앞세우고 정에 이끌려 자기 일도 아닌 곳에서 시간 낭비하면 결과는 볼 보듯 뻔하다.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해 내 앞길을 개척하라. 나, 사, 오 성씨는 나, 비 성씨 부탁을 거절하라.



▶**사건** 내 사랑을 남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85년 1, 3, 4, 6월생은 필요 이상으로 애인에게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철저한 방어막이 필요하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가, 비, 흥 성씨는 금전을 잘 관리할 것.



▶**행운의 예** 가, 마, 비 성씨는 주위에서 잘한다고 칭찬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장할 수 없다. 무엇보다 본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뒤에는 정확한 자기비판이 따라야 한다. 7, 8, 9월생은 노란색을 가까이하면 애정운이 나빠진다.



▶**건강의 예** 결혼을 앞둔 3, 5, 8월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미워해서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도록 상대 결정을 도와주라. 여차피 내 사람이 되는데 굳이 부스럼만 필요하겠는가. 마, 비, 표 성씨는 말조심.



▶**운명의 예** 2, 4, 5, 9월생은 금전운이 따르는 날이다. 목돈이 쥐어지면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다.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실수가 없는 날. 가, 비, 오 성씨는 가족에게 소홀하면 파문이 본인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듯.



▶**행운의 예** 일에 성과가 있다. 5, 8, 10월생 행정, 법, 중개업 종사자는 밀려드는 일 때문에 바쁜 하루가 될 듯. 78년생 가, 사, 오 성씨는 북,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좋다. 편안한 마음을 갖고 가족과 함께 떠나보라. 물건은 잘 챙길 것.



▶**행운의 예** 왜 3, 4, 5, 8월생은 지혜를 심부름 발휘하지 못하는가. 지금은 머리를 써야 할 때다. 아직 실패한 것은 아니니 열심히 노력하라. 재능에 행동력만 더한다면 불가능은 없다. 마, 비, 오 성씨는 서쪽 남녘을 조심하고 매사 오해 살 말을 하지 말 것.



▶**행운의 예** 자신 언던 일에 용기 있게 임한 1, 3, 5, 6월생은 뜻밖에 성과가 커서 기분 하루가 되겠다. 결과를 가족에게 전하면 좋겠다. 오늘은 귀가를 재촉하라. 아내의 진수성찬이 기대된다. 가, 오, 자 성씨는 1, 2월생 조연을 무시하면 낭패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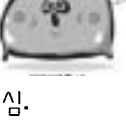
▶**행운의 예** 1, 3, 5, 8월생은 복잡한 문제를 잊을 수 있도록 여행을 떠나라. 80년생은 남달리 판단력이 정확하고 이해력도 있으나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이 흠이다. 신경이 예민해지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휴식을 취하라.



▶**행운의 예** 1, 3, 4, 5월생은 하는 일 때문에 계속 짜증이 나고, 미루고 싶은 마음뿐이나 최선을 다하라. 게으른 습성, 신경질은 건강을 해친다. 가, 사, 오 성씨는 가정 평화를 염두에 두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하라.



▶**행운의 예** 1, 2, 4, 6월생은 뱀, 닭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릴 듯. 단, 뱀띠는 당시보다 고집이 세니 매사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 비, 흥 성씨는 상담, 상담, 여행 등이 길하다.



▶**행운의 예**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과 직업이 있는데 그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4, 6, 8, 10월생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또는 함께하는 사람이 진실한지를 점검해 보라. 나, 오, 자 성씨는 부부간 불화가 예상되니 조심.